

## 구약과 생태계

### - 오경을 중심으로 -

#### 1. 서론: 문제제기

나쉬(Nash)는 기독교 신학과 윤리가 대체로 현대 생태위기를 절적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독교 신학전통이 세 가지 점에서 생태위기의 요인으로서 잘못된 세 가지 근본적인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즉 그것은 제한된 삶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 자연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인정하지 못한 것과 신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른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에서 정당하게 반응하지 못한 것이다(Nash, 1996: 6). 이 현상에 대해서 그는 기독교 전통의 생태학적 개혁을 주장했다. 또 하나의 주장은 환경파괴와 생태위기의 사상적 근본 원인을 서양사상과 과학기술, 문화전통에서 생겼는데 그 원뿌리가 창세기의 문화명령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cf. 전광식, 2006: 43). 그리고 성경과 생태학을 고려할 때 빠지지 않는 논쟁점은 하나님-인간-생태의 관계를 표현하는 도식이다. 성경적 생태학과 관련된 이런 제문제에 맞서서 새로운 생태교리나 생태윤리를 만드는 것이 신학이나 윤리학의 새로운 임무처럼 부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선행되어야 할 일은 성경 자체를 연구해서 본문이 환경과 생태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이것은 신학노선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생태신학의 문제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성경과 생태계 간의 관계를 연구할 때 주로 구약을 중심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구약이 창조를 다루고 인간을 피조세계를 다스릴 권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는 구약 오경에서 생태와 환경과 관련된 주요본문을 사건과 주제별로 분류하여 주석을 함으로써 생태에 대해서 구약이 주는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생태문제를 접근하는 ‘생태학적 해석학’은 지양한다(Habel, 2008: 1-8).

#### 2. 본문주석

##### 1) 창조기사

##### (1) 옛새 창조

생태계는 창세기 1장의 창조사역으로부터 시작된다. 옛새 동안의 창조를 기록한 창조기사는 일정한 구조를 갖고 있다. 창조기사는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환경을 제공하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공간을 점유하는 피조물이 창조된다는 점에서 대략의 대칭을 이룬다: 빛-발광체, 궁창, 물-새, 해양생물, 땅-동물, 인간. 또한 각 날의

창조는 도입(하나님이 이르시되), 명령(~있으라), 완성(그대로 되니라), 평가(좋았더라), 시간진행(~째 날이라)으로 구성되었다(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없는 것은 나누는 사역의 연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셋째 날에 결론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창조행위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동사 *bārā* 에서 확인된다. 구약에서 이 단어의 주어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인간의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창조기사는 앞에서 제시한 구조를 따라서 간략하게 작성되었다. 그것은 천지의 창조에서 인간창조로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는 인간이다.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주어졌다. 첫째 날의 빛은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드러내는 우주적인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대전승: 하나님의 임재의 빛나는 광채(Sarna, 1989: 7); 월튼: 빛이 존재하는 기간(Walton, 2006: 180). 둘째 날에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물의 한계를 정하셨는데 궁창은 현대인에게는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 즉 창공을 말한다. 셋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셨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아름다웠겠지만(1:10) 하나님은 생명체가 없는 텅빈 바다, 흙으로만 덮여있는 산과 들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땅을 각종 식물과 여러 가지 채소와 씨 맺는 나무로 번성하게 입히셔서 땅을 푸르게 하셨다. 이것은 앞으로 등장할 인간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 무엇보다도 이것들이 궁창에, 즉 보이는 하늘에 놓였다는 표현(1:17)은 앞으로 등장할 사람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하늘의 광명은 주야를 나누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임무를 갖고있다. 이 사실은 천체를 신으로 숭배하는 바벨론 신화와 큰 대조를 이룬다(태양신 샤마쉬, 달신 난나, 신). 본문의 ‘주관하다’는 말은 하나의 섬기는 기능일 뿐이다. 또한 ‘징조’(sign)라는 말을 사용한 것도 천체의 기능이 인간을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속에 헤엄치는 것과 공중에 사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1:20-21).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난다’는 표현도 그냥 공중에 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도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다. “큰 바다 짐승”으로 번역된 *tannin* 은 "큰 해양 생물"이란 뜻이다. 이 말은 다양하게 번역되었는데, 뱀(출 7:9; 신 32:33; 시91:13), 악어(겔 29:3), 힘센 동물(렘 51:34)등이다. 공룡이 있었다면 이때 생겼을 것이다. 괴물같이 큰 이런 동물들은 가나안의 고대 신화에서 신격을 가진 존재로 숭배를 받는데, 성경은 그것을 단순히 피조물로 묘사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쳐부수어야 할 경쟁자라기보다는 그 생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바다 생물과 새들에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물과 공중에 충만하라고 하셨다. 이는 이교적인 풍산의 제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가능하다(신득일, 1995: 48-49).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이 날에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생물을 내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므로써 창조사역은 절정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명령은 육지의 생물을 가축으로 알려진 육축과 작은 파충류와 곤충에 해당하는 기는 것과 야생동물에 해당하는 땅의 짐승으로 분류된다. 지구에 동물과

식물이 있고 또 그것들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인간이 등장한다.

이 창조의 순서는 생태계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tōb*). 물론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자 하나님의 만족을 표현하는 말이다.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매우 좋았더라”(*tōb m<sup>e</sup>’ōd*)고 하셨다(1:31). 이 말은 모든 것이 매우 적합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고 만드신 세상은 역사가 시작해서 그 목표에 이르러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세상이다”(Westermann, 1996: 166). 또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상태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한다는 것은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같은 목적을 가진다(네덜란드 신앙고백 12).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거나 인간과 자연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연은 인간 없이도 존재하지만 인간은 자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은 맞지만 이 말이 자연이 인간보다 우월하다거나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인간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지만 음식이 인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마 6:25).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 이 창조기사의 표현은 고대근동의 관점에서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왜냐하면 고대근동 전역에서는 ‘신들의 형상’이 왕에게만 적용되어서 그들이 신들의 대리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Walton, 2006: 212). 슈미트(Schmidt, 2007: 292-293) 구약이 인간 개개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왕신학의 민주화”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거꾸로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고대근동 국가에서는 왕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신들의 형상’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분명한 차이가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요 피조물의 대표임을 말한다. 그래서 생태와 관련해서 인간은 이 자연계를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한 국면이 된다. 이것은 다음 단락에서 다룰 것이다.

## (2) ‘문화명령’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이란 인간의 문화적인 활동을 통하여 창조세계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Pearcey & Thaxton, 1994: 35). 이 문화명령이란 말이 적합한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창세기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란 표현을 정의한 것이다(1:28). 이 사명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그 명령 자체가 복으로 주어졌다“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7-28).

생태계와 관련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임무를 맡았다. ‘정복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kābaš* 는 어원적으로 ‘밟다’(cf. 아카드어 *kabāšum*)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기본적으로 ‘정복하다’ 또는 ‘압제하다’로 번역되었다(민 32:22, 29; 수 18:1; 삼하 8:11; 대상 22:18; 대하 28:10; 느 5:5; 렘 34:16). 본문은 동사 *kābaš* 가 대명사 접미사 *hā*를 목적으로 받아서 ‘땅을 정복하라’로 번역된다. 이 동사가 땅을 대격으로 받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다. 이 단어가 재귀태(니팔)로 쓰여서 ‘땅이 정복되다’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그것은 전쟁 상황에서는 땅이 환유법으로 사용되어 그 땅의 주민이나 백성이 정복된 것을 의미한다(민 32:22, 29). 그러나 창조기사의 문맥에서는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맥에서는 ‘정복하라’는 말은 바로 앞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과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인간은 땅을 채우기도 하고 정복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땅에 그것을 차지하며 경작해서 소출을 얻는 것이 될 것이다(Bauckham, 2010: 16-17). 또한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동물의 왕국을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인간이 거주하는 세상에 대한 임무를 말한다(Wagner, 1995:54). ‘정복하다’란 말 자체는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강자와 약자를 나타낸다. 이때 강자가 지니는 힘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땅을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도권을 진 통치자로서의 역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복하라’는 말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땅과 자연을 착취하는 절대적 통치자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생태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명령이 이어서 나온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b).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스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rādā* 는 ‘다스리다’ 또는 ‘통치하다’를 의미하며(왕상 5:4; 시 110:2; 72:8; 사 14:6; 겔 34:4) *māšal* 과 동의어다(창 1:16). 이 언어적인 고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스림이나 통치가 ‘지배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신득일, 2016: 14). “인간의 지배는 소명이나 특정한 임무이지 독재적 지배가 아니다”(Hens-Piazza, 1983: 109). 이것은 인간이 동물의 왕국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생물의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왕국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 명령이 복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태계를 관리하는, 그분의 창조목적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 (3) 낙원과 생태계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동산은 산이나 숲이라기보다는 정원으로 봐야 할 것이다. ‘에덴동산’(gan-‘eden)은 ‘복락의 정원’이라는 뜻이다. 한글번역에 ‘창설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nāta’* 는 (나무를) ‘심다.’ (밭을) ‘일구다’는 말이다(시 80:16; 렘 29:5, 28). 에덴동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조성하신 정원이다. 그러나 그 정원은 단순히 나무와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면서 즐기는 것만이 아니고 있어서 인간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유실수가 있었다. 그곳은 과수원이 있는 정원이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은 여기서 모든 식물이 사람의 먹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창 1:29). 이것은 고대근동의 신들이 자신에게 음식을 공양하도록 인간을 창조한 것과는 근본적인 대조를 이룬다(Walton, 2006: 125, 215). 하나님은 자연이 인간의 생존수단이 되도록 하셨다.

에덴의 정원에 흐르는 네 개의 강의 이름이 소개되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프라데.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보다는 신학적 의미가 강하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일종의 성소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을 주는 물의 공급원이자 모든 피조물의 생명과 힘의 근원이 된다. 이 개념은 성경에도 잘 나와 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 (겔 47:1-12),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계 22:1-2). 이것은 고대근동의 사상과도 유사성이 있다(신득일, 2015: 21).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체가 최고의 복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인 생태계의 안에서 그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

아담이 ‘복락의 정원’에서 살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목의 열매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 정원에서 경작을 하고 지키는 임무를 주셨다(창 2:15).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명령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임무는 그 정원의 온전한 상태를 잘 보존하는 것으로 보인다(Sarna, 1989:20). 그는 땅의 소산이 필요한 자로서 땅이 고갈되지 않도록 지킬 필요가 있었다. 아담의 또 다른 임무는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이다. 창조기사에 나타난 문화명령의 첫 이행은 동물의 이름을 짓는 아담의 사역에서 나타난다(창 2:19-20). 물론 하와가 지음받은 것도 이 문화적인 사명을 함께 수행하기 위함이다. 그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동물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을 볼 이유는 없지만 세상을 함께 나누는 같은 피조물로서 인정하는 것이다(Bauckham, 2010: 23). 동물에 대한 아담의 사역은 창조주 앞에서 인간과 동물이 서로 위협이 되지 않고 공존하는 것을 보여주고 야생동물이 생태계의 주기를 따라서 인간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인간을 섬기도록 되어있다.

낙원에서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생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교제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세계 속에서 누리는 삶의 풍요를 보여준다. 즉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필요한 복을 주신다. 인간이 받은 사명도 그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 임무수행의 과정이 하나님의 만족을 나타내는 ‘좋았더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 2) 인간의 타락과 생태계

인간이 타락한 이후 생태계에 미친 영향은 먼저 뱀에게 나타난다. 뱀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인류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 대가로서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흠을 먹어야 했다”(창 3:14).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동물이 저주를 받지만 뱀은 더 많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다. 다른 동물이 저주를 받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생태계의 고통을 의미할 것이다(롬 8:22). 그런데 뱀의 원래 모습에 대해서 유대전승은 고대 근동의 예술에서 보듯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뱀에게 다리가 있어서 뱀이 서서 걸어 다녔다고 한다(Sarna, 1989: 27). 비평가들은 뱀이 그때부터 파충류가 되었다는 원인론적인 이야기로 보려고한다(Westermann, 1994: 259). 그것은 왜 뱀이 배로 다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려고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기사를 너무 쉽게 처리하는 부적절한 관점이다. 다른 해석은 뱀이 배로 다니는 것은 원래 형태이고 저주를 받은 결과로 뱀이 배로 다닐 때 티끌을 먹을 것이라는 것이다(Sailhamer, 1990: 55). 아니면 (지금처럼) ‘배로 다니면서 티끌을 먹을 것이라’로 번역할 수도 있다. 사실 뱀은 흠이나 티끌을 먹지 않는다. 이것은 굴욕적인 삶을 의미한다. 다른 본문에서는 인간이 당하는 굴욕을 ‘흠을 핥는다’고 표현한다(미 7:17; 시 72:9; 사 49:23). 뱀은 혀를 날름거리면서 흠을 핥게 되는 것을 말할 것이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도 저주를 받는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창 3:17). 원래 인간이 자연과 이루었던 조화가 그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다는 것이다. 이 저주는 인간의 노동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 땅의 비협조적인 특성에 내려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수고로운 노동을 해야 했다(Sarna, 1989: 28).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2:18)는 말은 그 식물이 사람이 재배하는 식물의 성장을 방해할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물이 밭에서 자라면서 땅의 자양분을 빼앗고, 햇빛을 가리면 인간은 밭에서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타락은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결과는 인간에게 돌아간다. 본문은 인간의 타락이 자연과의 조화를 벗어나서 인간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인간의 죄성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그 결과를 예상하도록 한다.

## 3) 홍수이후 생태보존의 언약

홍수사건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고 정화하는 사건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심판이지만 생태계의 상당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창 6:7). 여기서 히브리어 동사 *māhā*는 기본적으로 (접시를) ‘뒹아내다’를 의미한다(왕하 21:13). 하나님은 이 심판으로 새로운 세상을 조성하시고자 하셨다. 그 심판에서 동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한 짐승 암수 일곱 쌍, 부정한 짐승 암수 둘씩, 공중에 새를 일곱 쌍 방주에 들이도록 한 조치는 심판 이후에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창 7:2-3). 이 동물 중에는 홍수의 수위를 알아보는데 사용되고(창 8:7-11),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는 것도 있다(창 8:20).

홍수이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다(창 9:1). 창조기사에서 보았던 이 번성에 대한 명령은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마도 동물의 번성을 전제로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생육과 번성에 제약이 따를 것이다. 오히려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제시되었다. 짐승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마치 식물이 인간의 음식이 되듯이 동물이 음식이 될 것이라고 한다(창 9:2-3). 인간은 원래 채식주의자처럼 보였는데 이제부터는 육식도 허용되었다. 그리고 ‘피 짜 먹지말라’는 말은 인간이 야수화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레 17:11). 에덴동산에서 동물과 평화롭게 지내던 상태가 이 규정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복잡해졌다. 그렇다고 동물이 음식으로 제공된 것을 인간과 동물 사이의 평화가 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신 것은 다른 피조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다면 그 평화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과 우주적 언약을 맺으셨다(창 9:9-11). 그 의미는 다시는 홍수로 생명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사실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다. 그 증거로서 무지개를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모든 생물을 보존하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한다(창 9:16).

노아홍수는 인간에 의해서 주어진 심판이고 그 이후의 회복도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생태계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동물을 포함한 생태계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4) 율법과 생태계

율법은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생태계를 착취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율법에 나타난 생태문제는 가축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과 안식년 규례와 전쟁에 관한 법에서 나타난다.

##### (1) 생태 관련 규정

생태의 일부인 가축은 인간의 소유물로서 재산의 가치를 지닌다. 가축은 인간이 문화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가축은 농부가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어떤 가축은 교통과 수송수단이 되어서 인간이 문화적 사명을 보다 잘 수행하도록 도와준다. 이때 가축은 인간의 파트너로서 서로 의존한다. 물론 일을 하지 않는 가축도 집에서 기르는 동안 사람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생명의 가치를 느끼도록 한다. 가축이 가족 공동체의 일원과 같이 여겨지는 것은 안식일 법에서 잘 나타난다. 십계명 중 넷째 계명은 안식일에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고 집안의 가축도 쉬어야 할 것을 명령한다(출 20:10-11; 신 5:12-15). 인간이 일상적인 일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누릴 때 가축도 쉼을 얻음으로써 고역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를 받아야 했다. 가축이 인간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은 인간을 위한 효과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 돌봄을 받는 것이다.

가축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라는 율법의 규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놀랍게도 신명기 법은 가축이 먹으면서 일을 하도록 허용한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신 25:4). 농부는 타작을 하는 소가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워서 계속 일하도록 하지만 율법은 그 사소한 것을 금지한다. 왜냐하면 의인은 짐승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Tigay, 1996: 231) 이런 인도주의적인 돌봄은 가축이 고통을 면하도록 하는 규정에도 나타난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겨리하여 갈지 말며”(신 22:10). 이 금지규정은 수레나 쟁기를 끄는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만약 농부가 소와 나귀를 하나의 멩에를 매고 밭을 갈도록 한다면 멩에가 맞지 않아서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힘이 센 소가 약한 나귀를 지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부주의로 동물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원수를 이웃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에도 가축에 대한 친절을 언급한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지며”라는 구절만 보면(출 23:4) 이것은 동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축의 주인이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으로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과 병행을 이루는 다음 구절은 동물학대금지와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다: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옆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출 23:5). 첫째 구절에서 길 잃은 가축은 야생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인에게 돌아가서 안정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구절은 나귀가 짐을 과하게 실어서 넘어지는 경우에 함께 도와서 짐을 부려야 한다는 규정이다. 동물에게 과도한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비록 원수나 미워하는 자의 가축이라도 이웃의 가축과 같이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처음 난 것을 바칠 때에도 동물의 본성을 배려하는 내용이 있다. 땅의 열매를 바칠 때는 지체없이 드리지만 동물의 경우는 칠 일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출 22:30; 레 22:27). 그것은 어미 소와 어미 양의 모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보인다. 동물에 대한 잔혹성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레 22:28)은 인간적인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막는 조치로 보인다.

하나님은 식물과 동물을 인간의 음식으로 허락하셨다(창 9:2-3). 그러나 야생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염두에 두고 취할 것을 명하셨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신 22:6-7). 이 율법은 동지의 새를 언급하고 있지만 다른 동물에게도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를 제시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에서 ‘복을 누리다’는 ‘그것이 네게 좋을 것이다’(yītab fka)로 번역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원리를 지키면서 지속적인 먹거리를 제공받으면서 누리는 삶을 말한다.

## (2) 생태 관련 안식년과 희년 규정

안식년은 안식일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안식일이 사람이 쉬는 것을 강조한 반면에 안식년은 땅이 쉬는 것을 강조한다: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출 23:10);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육 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육 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레 25:1-7).

안식년 법의 목적은 가난한 자, 즉 경작지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생태를 보호하는 규정도 나타난다. 먼저 땅을 쉬게 하면서 거기서 나는 소출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또 가축이나 야생 동물과 나눈다. 땅을 쉬게 하는 것은 휴경기 다음에 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이 안식년 규정의 의도가 땅 더 비옥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Barker, 2003: 699-700). 더욱이 이 규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규례이기 때문에 땅의 풍요와 관련된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학적으로 한 해 동안 휴경기를 가지면 지력이 회복되어 더 비옥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문은 땅의 비옥함이 아니

라 사람에게 초점을 둔다. 하나님은 안식년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상적인 언약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여기에 생태계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안식년에 누리는 풍요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들짐승에게도 돌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풍부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때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3) 생태 관련 전쟁규례

신명기에 기록된 전쟁의 규례 중에 생태계와 관련된 것은 수목에 관한 언급이다. 성읍을 함락시키는 상황에서 장기전에 돌입하면 현지에서 전술에 필요한 자제를 마련하도록 벌목을 허용하는 내용이다(신 20:19-20). 나무는 전쟁에 쓸 다양한 도구를 만드는데 유용한 자제가 될 것이다. 군수품을 운반하는 수레와 성벽을 오르는 사다리와 창의 대와 같은 단순한 무기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실수는 도끼로 찍어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읍을 점령한 후에 그 열매가 그들의 먹을 양식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과목을 잘라버린다면 그 성읍을 점령한 후에도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그 성읍의 과일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분열왕국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동맹을 맺어서 모압을 공격한 일이 있다. 이때 그 동맹군은 이 전쟁의 규례를 어겼다. 그들은 성읍들을 쳐서 헐고, 돌을 밭에 채우고 우물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었다(왕하 3:25). 이 나무들은 과목을 포함한 모든 나무를 가리킬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는 모압 공략에 실패하고 말았다. 전쟁에서 과목을 보호하라는 규례는 생태보존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의도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 있다. 즉 수목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 3. 결론

위의 본문주석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다. 둘째, 창조세계인 생태계는 하나님의 능력과 완벽한 솜씨를 보여준다. 셋째, 자연은 인간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넷째, 자연은 인간에게 생존환경을 제공해준다. 다섯째, 자연과 인간은 상호의존적이지만 자연은 인간을 섬긴다. 여섯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인 생태계를 보존하는 임무를 맡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따라서 인간이 생태계를 훼손할 때는 인간의 생존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만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생태계에 대한 오경의 가르침은 인간은 자연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독교 신학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 아니라 잘못된 성경해석이 문제가 된다.

## 참고문헌

- 신득일 (1998). “하나님의 천지창조.” 『개혁신학과 교회』. 8. 29-54.
- 신득일 (2015). 『101가지 구약 Q&A 1』. 서울: CLC.
- 신득일 (2016).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동성결혼.” 『신앙과 학문』. 21(4). 7-23.
- 전광식 (2006). 『성경적 환경론』. 기독교 사상연구 시리즈3. 부산: 기독교사상 연구소.
- Barker, P. A. (2003). “Sabbath, Sabbatical Year, Jubilee,” ed. T. Desmond Alexander and David W. Baker,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Pentateuch*.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695-706).
- Bauckham, Richard (2010). *Bible and Ecology*. Waco,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 Habel, Norman and Peter Trudinger (2008). “Introducing Ecological Hermeneutics.” in Habel, Norman and Peter Trudinger. *Exploring Ecological Hermeneutics*. Symposium Series 46.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8).
- Hens-Piazza, Gina (1983). “A Theology of Ecology.” *Biblical Theology Bulletin*. 13/4 Oct. (107-110).
- Nash, James A. (1996). Toward the Ecological Reformation of Christianity. *Interpretation*. 50 no 1 Jan. 5-15.
- Pearcey, N. & Thaxton, C. B. (1994). *The Soul of Science: Christian Faith and Natural Philosophy*. Wheaton, IL: Crossway Books.
- Sailhamer, John H. (1990). “Genesis.” in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Genesis, Exodus, Leviticus, Numbers*. ed. Frank E. Gaebelin, vol. 2.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 Sarna, Nahum M. (1989). *Genesi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 Schmidt, 베르너 H. (2007). 『구약 신앙』. 차준히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Tigay, J. H. (1996). *Deuteronom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 Wagner, S. (1995). “שבק,” ed.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 trans. David E. Gree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52-57.
- Walton, John H. (2006).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 Claus Westermann, Claus (1994) *A Continental Commentary: Genesis 1-11*.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